

김성 군수 “군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장흥 실현”

●민선 8기 2주년

정책 토크 콘서트서 현장 즉문즉답 2년 성과 공유 천관산 HUG벨트 조성 등 인구 4만명 회복 ‘집중’

민선 8기 취임 2년을 맞은 김성 장흥군수가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크 콘서트’를 열고 희망찬 군정 추진을 위한 6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8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토크 콘서트는 군·읍·면 기관사회단체장, 마을이장, 청년대표, 언론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축제 홍보영상 상영, 장흥군의 경치를 담은 애국가 영상 상영, 군민과 함께한 2년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정책 방향 대담을 통한 비전 제시, 김성 군수와 군민과의 현장 즉문즉답 등으로 진행됐다.

김성 군수는 먼저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인 ▲천관산 HUG 벨트 조성 협약

▲천관산 공립 등산학교 유치 ▲국립 장흥호국원 유치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유치 등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유치와 국·도비 및 공모 사업비 4천2억원 확보 등의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설명하고, 이어 정책 대담을 통해 앞으로 민선 8기 후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천관산 HUG벨트는 고려 공예대우사당인 정안사 등 역사(History)자원을 활용해 ‘엄마의 품’ 테마형 특화(Unique)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천관산 일원 다양한 자연자원을 녹색(Green)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천관산 도립공원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



김성 장흥군수가 최근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지난 2년의 성과를 발표했다. <장흥군제공>

성, 장흥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여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군 역사상 최대 국책사업인 ‘국립 장흥호국원’은 총사업비 497억원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한다. 장흥호국원이 들어서면 연간 50만명 이상의 방

문객이 장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은 앞으로 ▲적극적 국·도비 확보를 통한 예산 7천억원 시대 개막 ▲인구 유입, 산단 투자 유치, 일자리 확충으로 인구 4만명 회복 기반 마련 ▲문화에 솔관관 르네상스를 통한 관광장흥 도약 ▲‘정남진’ 상징성과 연계한 ‘대한민국 통일 시대의 땅’ 이미지 구축 ▲농수축임산업의 친환경, 6차 산업화와 수출 500억원 달성을 통한 잘사는 농어촌 육성 ▲아이에서 어른까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확대 등 6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민선 8기 후반기 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지난 2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민선 8기 후반기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군민과 함께 공유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후반기에는 군민들에게 밝힌 군정 중점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장흥’ 실현을 위해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 금성농공단지 근로자 소통 행보

(주)자연과사람들 공장 배식 봉사활동...애로사항 청취

이병노 담양군수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공장 근로자 대상으로 소통 행보에 나섰다.

담양군은 8일 “이병노 군수가 최근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금성농공 단지에 자리한(주)자연과사람들을 찾아 공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배식 봉사는 소통 행정을 중시하는 이병노 군수의 군정 방침에 따라 마련됐으며,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는 정운기 금성농공단지 관리소장을 비롯해 이종문 (주)자연과사람들 담양 공장장 등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담양군은 임직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안내했으며, 임직원들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동참을 약속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을 군정 목표로 내세운 담양군은 관내 기업에 대한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 기업별 1사 1담당제 운용 등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업체와 소통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기업체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지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경제 분야 군정 구상을 밝혔다.

이종문 (주)자연과사람들 담양 공장장은 “군수와 직접 소통하며 만날 수 있

는 자리가 만들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담양군의 정책에 발맞춰 공장 경영을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순천시, 농경지 ‘습지 복원화’ 나선다

동천하구 습지 내 농경지 15ha 매입...생태축 연결

순천시가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내 농경지 15ha를 매입, 습지 복원화에 나선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내 농경지를 습지로 복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토지매입과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 국비 증액 사업으로 확보한 국내 최대 규모의 습지 토지매입비로 추진됐다.

순천 동천하구는 담사르습지로 등록, 국제적으로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습지다. 그러나 하천부지의 농경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활동이 하천 생태계 오염을 심화시키고, 습지의 기능 상실로 이어지는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순천시는 ‘순천동천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경작지를 습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습지 복원은 동천의 홍수 예방 및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순천시 시조이자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별

종위기종 흑두루미 등의 서식지 확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을 넓히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 11월 습지복원을 신설했다. 환경부 습지 토지매입비 총 288억원 중 12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이번 토지매입은 순천시의 습지 복원과 지속 가능한 생태 보전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모범적 사례다.

순천시 관계자는 “동천하구의 습지 복원은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토지매입 및 복원 사업을 통해 순천만부터 도심 방향으로 생태축을 연결할 계획”이라며 “이번 복원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와 생태계보호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의 원시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고품격 생태관광을 통해 생태가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천=정기자

광양제철소, P-GPT 플랫폼 업무 생산·효율성 ‘UP’

AI 활용 문제사항 해결·외국어 메일 번역 등 지원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8일 “생성형 AI 모델인 Chat-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내 GPT 플랫폼인 P-GPT를 오픈한 이후 이후 직원들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내 업무지원 시스템 활용 가이드에서 메일 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까지 다양한 분야에 AI를 도입하며 더욱 스마트한 업무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사내 업무지원 시스템 활용 가이드를 제공하는 ‘Helpdesk’에 GPT를 지난 3월에 오픈하며, 전자 직원들이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법 등 사내 IT 시스템 활용법과 문제 해결 방법을 GPT로부터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사내 콜센터에 연락하지 않고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추후에 인사 및 노무제도까지 Helpdesk GPT에 학습시켜 관련 제도에 관한 직원들의 질의응답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업무 분야에 걸쳐 GPT를 도입, 직원들이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내 메일 서비스에도 GPT를 도입해 GPT의 고도화된 번역 기능을 사내 메일 시스템에 적용, 직원들과 해외 현지 법인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도 가능케 했다. 한승주 포스코 태국법인 리더는 “P-GPT 활용으로, 태국어를 메일 화면에서 바로 번역하면서 작성할 수 있어 시간 절약과 함께 번역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포스코 디지털혁신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Helpdesk GPT와 같이 직원들이 궁금한 정보를 즉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분야 뿐만 아니라 현업 관련 전문 분야로도 확대해 직원들이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사내 IT 인프라와 AI의 접목을 가속화해 디지털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구례군 보건의료원, 산부인과 진료 재개

산전 검사·초음파 검사 등 진료 서비스 제공

구례군은 8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중단됐던 산부인과 진료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례군 보건의료원 산부인과는 2015년 1월부터 (재)자연드림씨앗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했으나 2024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지역 내 산모들은 인근 도시로 원정을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이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작용해 군민들은 지속적으로 진료 재개를 요청

해 왔다. 구례군은 군민들의 의료 접근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비를 투입해 산부인과 진료를 재개했다.

산부인과 진료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산전 검사, 초음파 검사, 임신 관리, 성병 검사, 자궁암 검사 등 다양한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역 내 의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고흥군, 민선 8기 군수 공약·지시사항 점검

100개 공약 중 43건 이행 완료...56건 정상 추진

고흥군은 8일 “지난 5일 군정 팔영산 출에서 2024년 2분기 민선 8기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공영민 고흥군수와 전 부시장, 관련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인 군민 생활과 밀접한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진단 및 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은 전체 100개 공약 중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43건의 공약을 이행 완료했고, 56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어 정상 추진율은 99%에 이른다. 완료된 주요 공약으로는 ▲2000 고흥 인구 10만 로드맵 수립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북동향 드론쇼 개최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 ▲가정방문 노인전담 주치의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의료수급권자 틀니·임플란트 지원 ▲공공형 일자리사업 확대 ▲관내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이 있다.

공영민 군수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장성군은 8일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홍길동테마파크·상무평화공원 바다분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진> 홍길동테마파크 바다분수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원형분수는 오는 13일부터 시원한 물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말 및 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되며, 8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달 27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는 휴가철을 맞아 평일에도 운영한다.

상무평화공원 바다분수는 음악에 맞춰 조명과 물줄기가 연출되는 ‘음악분수’다. 서부권에선 최고의 여름철 명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명과 분수를

함께 즐겨야 제맛이다 보니 가동 시간도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늘었다. 평일에는 4회, 주말 6회 가동되며 하루 30분씩 감상할 수 있다.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하절기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된다. 주말 및 휴일 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꾸준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놀이를 즐길 순 없지만 황룡강 인공폭포도 둘러볼 만하다. 플라워터널, 용작교 등 경관조명과 함께 감상하면 더 큰 감동을 얻을 수 있다. 10월 말까지 운영해 방문 일정 짜기에도 수월하다. /장성=김태기 기자